

보도자료



보도일	2017년 2월 24일(금)		
배포일	2017. 2. 24.(금)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학위수여: 학사과 /행사: 총무과 /축사: 홍보팀	문의	학사과(02-880-5033) 총무과(02-880-5093)

서울대학교 제71회 학위수여식

□ 서울대학교는 제71회 학위수여식을 2017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22명, 석사 1,804명, 박사 699명 총 4,925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서울대는 이날 소설가 최인훈 선생(81, 법학과 1952년 입학)과 세계적 생명과학자 신승일 선생(79, 화학과 1957년 입학)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 최인훈 선생은 ‘광장’,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날 오후 4시 법과대학 학위수여식(문화관 대강당)에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생명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신승일 선생은 영국 국립의학연구소 등 세계 우수 연구소를 거쳐 유엔개발계획(UNDP)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를 서울대에 유치하는 데 공헌했다.

□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내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일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졸업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며 “삶의 깊이와 철학이 느껴지는 품격있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참

부1>

□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로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혁신적 연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 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공대 조규진 교수(44)를 초빙하였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혁신을 선도할 지성과 겸손한 책임감, 봉사적 삶을, 조규진 교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완벽함을 벗어던지는 도전정신을 각각 축사에서 강조하였다. <축사 자료 첨부2, 3>

□ 서울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단장, 관악봉사상 수상 등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벤처창업(문화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마이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종교학과 이진열 학생(28)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는다. <대표 연설문 별첨4>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 주요 식순

-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졸업생 대표 연설(이진열, 종교학과), 축사(공대 조규진 교수),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가제창

* 붙임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조규진 교수),
졸업생 대표 연설문(종교학과 이진열)

【붙임1: 총장 학위수여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예로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헌신과 열정으로 지도하고 지원해주신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정든 강의실과 교정을 떠나 각자 보내 온 축적의 시간을 학교 밖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난관이 여러분의 앞날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패기와 열정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주역이 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세상이라는 산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고, 산의 정상까지 한 걸음이 남은 사람도 있으며, 첫 번째 정상에 깃발을 꽂고 또 다른 산을 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시야와 한계를 넓은 세계로 확장해 보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여러분의 거주 지역을, 도시를, 나라와 세계를 각기 다른 수준에서 삶의 새로운 도전 무대로 설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는 것은 삶의 작은 단면에 안주하고 지엽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중요합니다. 삶에서의 성공은 시야와 한계를 확장하여 큰 그림을 머릿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고 실천할 때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시야와 한계를 확장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용기란 압박 하에서 피어나는 미덕”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원치 않는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지만 어떻게든 일어나서 그에 맞서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졸업생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莊子, 外篇 秋水). 이제 낯선 신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미래가 보입니다.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 앞에 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 일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나와 대화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늘 설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자신을 찾는 일’은 몰랐던 나와 대면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더디어도 그런 자신을 찾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각자의 삶을 비범한 작품으로 만들어 냅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눈부신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서울대학교의 정신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물이 깊어야 맑은 물을 얻을 수 있고,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외적으로만 포장하는 단순한 지식 습득과 스펙 쌓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정 삶의 토대가 되어 주는 올곧은 품성, 바른 정신을 가진 인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제가 총장 취임과 함께 강조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善)한 인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냉철한 지성만큼이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시대정신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값진 보배가 될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짧은 대화에도 삶의 깊이와 철학이 느껴지는 품격 있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리하다는 말을 듣기보다 사려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배타적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굳건한 선의지(善意志, guter Wille)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세상을 만들

고 어떤 사회와 국가를 후대에 물려줄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주길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언제나 가족의 품과 같은 따스함으로 영원히 여러분을 반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정에서 쌓은 즐거움과 추억을 간직하며 모교를 위하여 애정을 마음껏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예로운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붙임2: 축사1 서정화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과 모교의 교직원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자 함께 하신 내외빈 여러분.

힘난한 학업의 관문을 통과하여 더 큰 발걸음을 내딛으려 하시는 졸업생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전통을 형성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서구의 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회와 지도층이 협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양의 대학은 국가의 주도 하에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학이란 한 국가의 학문과 정신과 교육의 총역량을 모아낸 고등교육의 정수였습니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한계를 뚫어내어 공동체와 함께 전진하는 최고의 지성을 기대해왔습니다.

오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 또한 동일한 전통 위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고구려의 태학,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모두 국가의 주도 하에 민족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구한말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국가의 역량을 모아 법관양성소를 비롯한 일련의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주체적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교육기관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개학의 기원이며,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국망과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棟樑이 되어나가면서 현재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근대화 이후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서구 열강들은 이제 과거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겨우 자국을 보호하는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조차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 대처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정치, 외교, 경제, 무역 분쟁,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갈등과 변화가 발생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정세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는 과거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론을 모아내어 국가 진흥의 동력을 생산해낼 합당한 권위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성장에 짓눌려 浩然之氣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공감하지만,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그 내부에서부터 무老해가고 있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전 요인은 헌신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조국이 배출해낸 최고의 인재들이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개인의 壯途인 동시에 조국의 미래입니다. 이곳에서 섭렵한 세계적 문헌, 수행해온 활동, 맺어온 각국 대학과의 인연들은 가장 큰 날개가 되어 여러분들의 飛翔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와 사회의 도약입니다. 여러분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35만 서울대인의 법인체로서 서울대인이 계승해야할 가치로 지성, 겸손, 봉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사회의 혁신을 선도할 탁월한 지성과, 공동체의 성원과, 배려 속에서 발전해왔음을 자각하는 겸손한 책임감을 겸비하여, 개인의 성취와 국가의 발전을 큰 틀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봉사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절대선의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성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능력과 장대한 기품과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가진흥 속에 놀랍게 결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붙임3: 축사2 공대 조규진 교수】

소개해 주신대로 저는 로봇 과학자입니다. 요즘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예견하고 로봇을 연구해 온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호기심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내 놓기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로봇에 대해 연구하다보니, 어느새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적 흐름 한 가운데 서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가 아직 여러분 앞에서 삶을 논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멎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저희 실험실에서 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도 나온 **Exo Glove Poly**라는 로봇인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과학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로봇에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스스로 식사를 못하시는 장애인을 돕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최신 매니플레이터 기술로 로봇팔을 만드는 구상이 금방 떠올라서 신나게 만들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식사보조용 로봇팔을 만들 수 있을지 여쭙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대답은 “나는 로봇이 밥 떠먹여 주는 건 싫다. 내 손만 움직이게 해다오. 내 스스로 밥을 먹고 싶다.” 이셨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너무 당연한 인간의 욕망,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한 채 폄 나는 최신 로봇을 만들 생각만 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학생들과 끈으로 손가락을 당기면서 로봇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그런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칠년간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했고, 그 결과, 세상에 없던 형태의 소프트한 손 보조 로봇이 나왔습니다. 이런 로봇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셔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세상에 없던 로봇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제 로봇이 상용화돼도 사람들은 금방 더 새로운 것을 원할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술이 이처럼 다양한 욕망을 가진 인간을 위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 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개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새로운 시대는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면 인간을 위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CREATOR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활용 가능한 기술을 연결하고 융합해 기술 진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아닌,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에 내 아이디어 따위는 세상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습니다. 진실한 소망, 작은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키워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실현되지 못한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만남과 연결을 통한 창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코딩해 줄 파트너를 만나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기술,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질적인 세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피곤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피곤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피곤함은 ‘완벽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독을 참으며 완-벽을 향해 걸어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 과정을 잘 참을수록 달콤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는 완벽해진 후에 시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을 피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완벽주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마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컴퓨터처럼 퇴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연구 아이디어를 물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편인데요,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없는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노력하고 다른 지식창고를 둘러봅니다. 그러다 “아, 이건 정말 새로운 거네. 아~무도 안 했잖아”,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세상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신이 나기도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 주시는

분들, 제가 믿는 학생들, 또 제 발 밑의 안전망을 믿고 두려움과 싸우며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이 되어 갑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저만의 감정일까요?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사는 젊은이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아이디어를 손에 쥐면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창의적이라면, 너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라면, 어디 한 번 맨 땅에 헤딩해 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청년은 알을 품은 어미와 같습니다. 그 작은 알을 치열하게 안고 있어야 마침내 알 속에 있는 것이 세상에 나옵니다. 창의적인 삶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불안을 떨쳐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깨진 달걀들이 낭자한 처참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서로 다르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사회입니다. 인간에게 고독한 고행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굴러 올린 바위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곳에서 무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승리하는 사회입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쉽 없이 움직이면서 불완전한 여러분이 던져 줄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붙임4: 졸업생 대표 인사말】

제71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925명의 졸업생을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 3월, 이 자리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여했을 때, 대학교를 초등학교보다 더 오래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9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친구들과 함께 출석만 부르고 도망갔던 날들, 목사님 스님, 교수님들과 함께 종교학과 답사를 떠나 이름 쌓기 게임을 했던 일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관악을 누볐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반쪽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놓지 못했지만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한 쪽 눈의 시력 없이 살아 왔고, 그 덕에 참 어린 나이에부터 큰 수술에 익숙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남들과 다르다는걸 깨닫지 못했고, 점차 한 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 왔고, 살아가야 한 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라 아버지의 존재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홀로 목욕탕에 가고, 혼자서 면도하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아버지께 첫 술을 배우는 친구들을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저에게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어머니 한 분 뿐이었고, 사춘기를 완전히 지나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반쪽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서울대학교는 진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두 가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서울대학교 공식봉사단 나눔실천단 활동이었습니다. 평생을 점수, 등수라는 잣대로 평가받고 살아온 저에게 나눔실천단 활동은 새로운 잣대로 세상과 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저는 나눔실천단 단원으로, 그리고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6곳의 교육 소외지역의 600여명의 학생들과 만났고, 서울 소재 6개 사회복지센터와 함께 1,000여명의 서울대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 땀과 눈물을 흘리며 20대의 초, 중반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거 열심히 해봤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큰 스펙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은 돈이나 스펙 같은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자조 섞인 사람들의 눈총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고, 친구들이 유럽이며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 논과 들 사이에 있는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보였던 반쪽짜리 인생인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눔실천단과 함께 한 3여년의 시간은 저에게 제 인생이 반쪽 인생이 아닌, 완전한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나눔실천단 단장직을 뒤로하고 2012년부터 저는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던 제게 창업이라는 길은 가시밭길 같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겹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리가 버는 돈 혹은 앞으로 벌게 될 돈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노력과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에서 밀려난 조직과 개인은 철저히 도태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날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월급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저에게 온전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지를 ‘진정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이, 그리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저에게 창업은 그 틀 밖에 엄청난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아직 저는 성공한 창업자는 아니고, 지금도 10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만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는, 아직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록 매일 잠들 때마다 “그냥 때려 칠까?”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이 이제는 반쪽 인생은 아님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은 원래부터 완전했고 앞으로도 완전할 것임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 현재는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20년이 넘게 주어진 과제에 1등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우리에게 사람들은 이제 ‘꿈’ 과 ‘비전’ 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린 날과 달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 것’ 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이 졸업식의 문을 나서서 사회에 나가면 모두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서울대생이 이 정도 밖에 못하나?” “서울대생이 이런 일을 왜 해?” 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고작 복사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일 뿐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 모두,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서울대생이 됩시

다” 나 “이제 여러분의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같이 무책임한 인삿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온전히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잣대에서는 다소 이상하거나 부족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걸어갈 그 길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절하 할지라도 그저 여러분이 앞으로 숨쉬고 살아갈 날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순간은 반쪽 인생이 아닌,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말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온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오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졸업생 대표 이진열